

# 한국의 ‘정(情)’과 일본의 ‘아마에(甘え)’에 대한 인지적 고찰

김 명 희  
(한양대학교, ERICA)

## 1. 서론

서양의 주류 학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객관적,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다. 인문사회 학문 분야에서 주류는 아니지만 이러한 비서양적, 문화적 관점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족심리학(folk psychology), 문화-역사 심리학(cultural-historical psychology,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 혹은 민족지학적 접근(ethnographical approach), 최근의 해방화용론(emancipatory pragmatics)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표하는 심리체계인 ‘정(情)’과 ‘아마에(甘え)’를 언어 학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양국 문화심리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어의 아마에(甘え)란 과연 무엇인가?’하는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아마에’라는 개념은 일본의 심리학자인 다케오 도이(Takeo Doi)가 1971년 『아마에의 구조(甘えの構造)』<sup>1)</sup>라는 저서를 통해 처음 소개한 후, 일본 문화 및 일본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의존(dependence)’, 혹은 ‘관대한 사랑(permissive love)’ 등으로 번역되곤 하며, 심리학, 문화인류학,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본 문화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문화에서도 ‘아마에’와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가? (2) 만약 그렇다면, 두 개념은 얼마나 유사한가? 마지막으로, (3)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즉, 일본 문화의 키워드인 ‘아마에’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비교적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한국 문화에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언어학적인 시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아마에(甘え)의 의미

‘아마에’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그 동사에 해당하는 ‘아마에루(甘える)’의 의미는 ‘응석부리다, 어리광부리다, 상대방의 호의에 기대다’ 등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마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마에’가 무엇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Behrens 2004:1). 다음은 지금까지 제시된 ‘아마에’의 정의이다 (Behrens 2004:2):

- (a) 다른 사람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욕구 (Toi 1973)
- (b) 아기처럼, 장난스럽게 행동하는 것 (Taketomo 1986)
- (c) 서로를 향한 관대함, 응석 등을 받아 주는 관계 (Lebra 1976)

---

1) 1973년 *The Anatomy of Dependence*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서구에 소개되었으며, 일본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2) 이상옥(2006, 2008, 2010)은 예외라 할 수 있다.

(d)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것 (Okonogi 1992)

(e) 상대방의 선의를 이용하는 것 (Mitchell 1976)

Behrens(2004)는 '아마에'가 일련의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내적 감정, 철학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도이(1973)에 따르면, '아마에'는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그러한 관계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어른이 마치 아기의 역할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마에'를 하는 사람은 '아마에루(甘える)'한다고 하고, 이를 받아주는 상대방은 '아마야까수(甘やかす)'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t reciprocity)이다. 즉, '아마에'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이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아마에'를 받아주는 사람 또한 언젠가는 그 반대의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아마에'는 흔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특징지어 주는 개념(uniquely Japanese concept)으로 잘 알려져 있다(Doi 1973; Johnson 1993). 물론, 도이와 몇몇 학자들은 '아마에'와 유사한 개념이 다른 문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Behrens 2004; Berton 1998; Lewis and Ozaki 2009). 특히, Lewis와 Ozaki(2009)에 따르면, 영국 중부지방의 방언인 '마디(mardy)'라는 단어는 '부드러운, 버릇없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에'와 매우 유사하나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아마에'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일상생활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어령(1982)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보면 "아마에란 말은 일본 말에만 있지 않다. 점보비행기를 타고 시거 한 대 피우는 동안이면 금세 날아갈 수 있는 바로 이웃나라에 자갈처럼 흔하게 깔려 있는 말인 것이다 (13)"라고 하고, '아마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응석받이', '응석 부리다', '응석 받다', '어리광' 등을 들고 있다. 심지어 이어령(1982)은 "의미만이 아니라, '응석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 라든가, 어리광을 받아 길러서 애가 저렇게 되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 육아 문제의 커다란 쟁점을 이루고 있어 '아마

에’는 일본보다 한국인의 정신구조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13)”라고 주장하고 있다(신혜경(2006) 참조).

한국어에는 ‘아마에’와 같은 뜻을 가진 단일한 표현은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애교, 어리광, 응석, 아양, 재롱, 업살’ 등은 대체적으로 중립적 혹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앙탈, 땡강, 아침, 깨방정, 강짜, 주책, 주쩍’ 등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아마에’와 유사한 현상은 존재하나 그에 해당하는 표현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비교적 빈도수가 높고 중립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선택하여 코퍼스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3. 코퍼스를 이용한 한국어의 ‘아마에’와 유사 단어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마에’와 유사한 표현을 가진 한국어 표현들이 실제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제공하고 있는 7백만 어절의 현대 문어 코퍼스를 검색하였다. 특히, 비교적 중립적 의미를 가지며 빈도가 높은 ‘애교’, ‘응석’, ‘어리광’, ‘아양’의 네 개의 표현을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표현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았다: (1) ‘애교’ 47회, (2) ‘응석’ 46회, (3) ‘어리광’ 30회, (4) ‘아양’ 9회. 다음에서 각 단어의 의미와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 1) ‘애교’

애교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이다. 7백만 어절에 달하는 현대 문어코퍼스에서 ‘애교’는 총 47번 출현하였다. 이중 반 이상에 해당하는 26개의 경우에서 ‘애교’는 주로 긍정적인 여성적 행동 특징을 가리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저의 배우자는 제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명랑하고 애교 많은 여성이었으면 합니다. (좋은 생각, 2000)<sup>3)</sup>
- (2)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몹시 애교스런 미소를 지으며 그 절름발이 남자의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하일지, 민음사, 1993)

그 외, '애교'는 다른 단어와 달리 봐 주거나 웃어넘길 수 있는 작은 실수나 행위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3) 호텔 경비를 책임진 부산 남부 경찰서 관계자는 “불상사는 아니었다. 애교 정도로 봐 주면 된다...” (동아일보, 2002)
- (4) 하지만 그렇게 조금 개미들 그러는 거야 애교로 봐 줄 만하죠. (김서정, 문학과지성사, 2001)
- (5) 그들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라거나 '애교 있는 거짓말'이라는 미명 아래 정직을 배반한다. (김동길, 유안진 외, 삼성출판사, 1992)

(3)-(5)의 예는 모두 작은 실수나 잘못들을 '애교'로 보아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애교'는 코퍼스에서 긍정적인 여성적 특징을 지칭하거나 웃어넘길 수 있는 작은 실수를 지칭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양'

'아양'도 역시 '귀염을 받으려고 알랑거리는 말 또는 그런 짓'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즉, 애교와 마찬가지로 내적인 상태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특정 행위를 지칭한다. '아양'은 코퍼스에서 9번 출현할 뿐이다. '아양'은 '애교'와 대부분 유사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용례 뒤의 괄호 안에 용례의 출처가 제시되어 있다.

- (6) 그중에서도 자태가 미려한 장미가 아얌을 떨면서 화왕의 총애를 독점하려 한다. (이어령, 문학사상사, 2003)
- (7) 차라리 암수한몸이었다면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아얌을 떨 까닭도 없으련만. (최재천, 궁리출판, 2003)
- (8) 속없는 태란이 언니 태옥을 보자 아얌을 떤다. (공선옥, 문학과지성사, 2002)

하지만 ‘애교’가 대부분 긍정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에 비해, ‘아얌’은 아래(9)에서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 (9) ... 샤프 연필도 쓰고 있더니 가져간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계집아이같이 아얌을 떨고 하더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가 그렇게 빼뺏어진 채... (이오덕, 한길사, 1989)

### 3) ‘어리광’과 ‘응석’

‘어리광’과 ‘응석’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리광’은 ‘어른에게 귀염을 받거나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어린아이의 말씨나 태도로 버릇없이 굴거나 무엇을 흉내 내는 일’, ‘응석’은 ‘어른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귀여워해 주는 것을 믿고 버릇없이 구는 일’로 나와 있다. 두 표현 모두 어린 아이의 행동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퍼스를 살펴보면 46번의 ‘응석’과 30번의 ‘어리광’이 나타났다. 하지만, ‘응석’의 경우 46번 중 32번이 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코퍼스 자료 중의 하나인 김용운(1985)이 일본 문화에 관한 저서로 ‘아마에’와 유사한 개념으로 ‘응석’을 사용하였기에 ‘응석’의 빈도가 높아졌음은 유의할 점이다.<sup>4)</sup>

코퍼스에서의 ‘응석’과 ‘어리광’의 사용을 살펴보면, ‘아마에’와 유사하게 유아의 어머니와의 의존관계를 암시하고 있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4) 이어령(1982)도 ‘아마에’의 상응하는 표현으로 ‘응석’과 ‘어리광’을 사용하였다.

- (10)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어머니 싫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길에 매달리며 응석을 부리듯 말한다. (이문열, 민음사, 2004)
- (11) 요행 딸로 태어난 덕에 나는 응석을 부리기만 하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서운영, 궁리출판, 2003)
- (12) 나이를 일흔 살이나 먹고서도 어린애처럼 색동옷을 입고 늙은 부모 앞에서 어리광을 피웠던 것이다. (이어령, 문학사상, 2003)
- (13) 그녀는 내 팔장을 풀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리광을 부리듯 과장되게 안겼다. (성석제, 문학과지성사, 2002)

이러한 의존 관계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 (14) 미친 체하고 떡 목판에 엮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체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염상섭, 창작과 비평사, 1987)
- (15) 사랑이라는 말로 그녀를 잡으려는 것이 너무 어리광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몇 번이나 혀끝에 밀려나오던 말을 삼켜야 했다. (민혜연, 영언문화사, 2001)
- (16) ‘고 새끼’ ‘고 녀석’ 하면서 사위를 비난하고 딸을 두둔하며 온갖 응석을 다 들어 주었다. (박완서, 창작과비평사, 2002)
- (17) “고이헌 사람. 응석 부리는 걸 보아 하니 젓먹이나 진배없네그러. (김영주, 창작과비평사, 1982)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애교’, ‘아양’, ‘어리광’, ‘응석’의 대표적 한국어 표현을 살펴본 결과, 일본어의 ‘아마에’에 해당하는 개념이 한국어에는 단일 용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Wittgenstein 1953)’의 특징을 가진 여러 개의 단어가 공존하는 듯하다. 또한, 한국어의 표현들이 ‘아마에’와 유사하게 유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존적인 행동 체계를 지칭하긴 하지만, ‘아마에’와 같은 심리 체계까지 지칭하진 못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각 단어의 비교적 낮은 빈도는 이들이 한국인에게 일본어의 ‘아마에’만큼 비중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에는 ‘아마에’와 같이 심리와 행동양식 모두를 지칭하는 단일한 개념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양식을 지칭하는 표현과 심리 체계를 표현하는 표현이 별개로 존재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위의 ‘애교’, ‘아양’, ‘어리광’, ‘응석’ 등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적 개념으로서 ‘정(情)’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한국의 ‘정(情)’

‘정(情)’은 한국의 문화를 특징짓는 키워드로서, ‘아마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사실 ‘정(情)’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 다 존재하는 개념으로 같은 한자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각국 문화에서 ‘정(情)’의 의미와 중요성은 조금씩 다르다. 즉, 중국 문화에서의 ‘정(情)’은 관계 속에서의 의리와 관계성의 측면을 강조한다. 일본 문화에서는 ‘닌조(人情)’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회적 의무를 가리키는 ‘기리(義理)’에 비교하여 감성적인 개인적 감정을 지칭한다. 이에 비해, 한국 문화에서의 ‘정(情)’은 좀 더 복잡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일본어의 ‘아마에’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정(情)’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정의되어 있어 매우 일반적인 감정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Kwon(2001:45-46)은 ‘정’이 서양의 서로에 대한 사랑 (mutual love in the Western sense)에 해당하며, 한국민들을 연결시키고 활력소를 주는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최고의 ‘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모정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가족에게서 처음 시작된 정은 점차 더 넓은 인간관계로 확대된다고 하였다. 이는 ‘정’이 일본 문화의 ‘아마에’와 매우 유사한 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을 바탕으로 한 한국 문화는 다른 문화에 비해 ‘우리’라는 관념이 강할 수밖에 없다. 최상진 외(2000)에 의하면, 한국인의 ‘우리(we-ness)’



는 '관계성', '가족관계성' '타 집단 배타성', '편 가르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하나됨(oneness)', '결집유대성(solidarity)',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 '일치성(sameness)'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가 된다'함은 일심동체가 된 가족 관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 의미체계를 코퍼스에 나타난 실제 언어 사용을 통한 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코퍼스에 나타난 '정(情)'의 분포

현대 문어코퍼스를 검색한 결과, 308회의 '정(情)'을 발견하였다. 위의 다른 단어와의 빈도수의 격차는 놀라운 것이며, '정(情)'이야말로 실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정'은 우리 언어 속에도 깊이 내재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구문 속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분석해 본다면, 한국문화와 한국인에게 '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체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情)'은 다양한 복합어를 만들어 내는데 쓰인다.

- (18) 모정(母情), 우정(友情), 애정(愛情), 심정(心情), 열정(熱情), 인정(人情), 비정(非情), 다정(多情), 정나미, 사정(事情), 부정(父情), 매정(매정), 냉정(冷情), 몰인정(沒人情), 무정(無情), 정서(情緒), 감정(感情), 정조(情操), 옛정, 만정(萬情), 오만정(伍萬情)

'정'의 수식어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19)와 (20)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수식어를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 (19) 가는 정, 오는 정, 오고가는 정, 고운 정, 뜨거운 정, 따사로운 정, 깊은 정, 돈독한 정, 두터운 정, 살가운 정, 애뜻한 정, 부드러운 정, 아름다운 정, 그윽한 정, 순수한 정, 포근한 정

- (20) 미운 정, 더러운 정, 질기고 모진 정, 끈끈한 정,

(19)-(20)의 예를 보면, 긍정적인 의미의 ‘정’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깊고, 두터운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 부정적인 의미의 ‘정’은 질기고, 끈적거리고, 더러운 것으로 표현되어 그 관계가 복잡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21)의 예는 ‘명사(N)의 정(情)’ 형태의 표현들이다.

(21) 혈육의 정, 골육의 정, 낳은 정, 키운 정, 모자의 정, 부부의 정, 조부모의 정, 이웃 간의 정, 사제의 정, 우국의 정, 사람의 정, 속세의 정, 연민의 정, 기다림의 정, 개전의 정, 회한의 정, 믿음의 정, 석별의 정, 연모의 정, 마음의 정, 흠모의 정, 사모의 정

(21)의 예는 ‘정’이 가족 간의 혈육의 정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인간관계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

## 2) ‘정’의 인지적 분석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사물 또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신체, 사물 등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특히, 은유란 한 개념 영역(‘목표영역’)의 측면에서 다른 한 개념 영역(‘근원영역’)을 이해하는 인지 과정이다. ‘정’과 같은 복잡한 감정 체계도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의 쓰임을 알게 되면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된다. 나익주(2006)는 한국인의 대표적 심리체계인 ‘정’과 ‘한’을 은유 이론을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정은 물건], [정은 끈적끈적한 물건], [정은 그릇 속의 액체], [정은 자양분], [정은 귀중한 소유물], [정은 따스함]으로 개념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코퍼스에서도 그와 유사한 개념화의 예를 볼 수 있었다.

### (1) [‘정’은 (소중한) 물건]

우선 (22)의 예에서 정은 만지고, 셀 수 있고 축적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은유 화함을 알 수 있다.

(22)

- ㄱ. 그 분은 정이 많고 자상했습니다. (조선일보, 2002)
- ㄴ. 명절 때 잠시 보는 할머니라 살가운 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 1999)
- ㄷ. 당시의 아버지치고는 정이 과하다. (김영하, 문학과지성사, 2001)
- ㄹ. 편지와 전화로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좋은 생각, 1999)
- ㅁ.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소이다. (좋은 생각, 2000)

(22ㄱ-ㄷ)은 '정'이 마치 셀 수 있으며 적정량의 정이 있어 과할 수도 모자랄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2ㄹ-ㅁ)에서는 '정'을 차곡차곡 쌓거나 두터워지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그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은 사람이 지니고 있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가기도 하며 심지어 남에게 보여 줄 수도 있다. (23)의 예를 보자.

(23)

- ㄱ.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이곳에 도착했다. (중앙일보, 2002)
- ㄴ.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우애령, 문학과지성사, 2001)
- ㄷ. 개전의 정을 보여야 봐 줄 거 아니오. (방현석, (주)창비, 2003)
- ㄹ.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애뜻한 정이 오가고 (좋은 생각, 1999)
- ㅁ. 아내도 부를수록 정이 가는 이름이라고 좋아했다. (좋은생각, 1999)
- ㅂ. 그 동안에 벌써 정이 들었더냐? (김영주, 창작과비평사, 1982)

많은 경우, '정'은 (24)의 예에서와 같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선물과도 같은 소중한 물건으로 개념화 된다:

(24)

- ㄱ. 아름다운 정을 나누며 눈물겹도록 고맙게 살아가기도 한다. (박상규, 창작과비평사, 1981)
- ㄴ. 흙모의 정을 바치는 충성스런 동료와 후배들 (한겨레신문, 1999)

- ㄷ. 전쟁 중에 우린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정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지. (방현석, (주)창비, 2003)
- ㄹ. 제 연모의 정을 부디 받아 주옵소서. (좋은 생각, 2000)
- ㅁ. 두 사람도 애초에는 영조를 가엾게 여겨 정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었다. (홍성원, 문학과지성사, 1993)
- ㅂ. 그녀는 처음부터 그에게 깊은 정을 주었고, 그뒤로 한번도 그 정을 되찾아간 적이 없었다. (북거일, 문학과지성사, 2001)
- ㅅ. 그녀가 부부 사이의 우호적인 정을 요구하듯 그의 가슴에 어깨를 기댄다. (민혜연, 영언문화사, 2001)

‘정’은 더 나아가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을 대신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에서 ‘정’은 자신의 몸과 돈 등을 대체하는 물건이다.

(25)

- ㄱ. 어딜 가든 몸을 팔면 돼. 일에 팔고 돈에 팔고 정에 팔고.... (한수산, 문학사상사, 1996)
- ㄴ.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이게 정이라며 꼭 손에 차비를 쥐어 주는 매형 (좋은 생각, 1999)

지금까지 ‘정’이 사람 사이에 존재하여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은유화한 경우라면, 다음에서는 ‘정’이 사람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물건으로 은유화된다.

## (2) [‘정’은 용기 속에 담긴 유체]

인간의 몸을 감정을 담은 용기로 은유화하고, 감정을 그 그릇 속의 유체로 은유화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Kövecses 2002: 93-98; Lakoff 1987: 380-415). 한국어의 ‘정’도 마음속에 간직하는 소중한 물건으로 개념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26)

- ㄱ. 인섭에 대해서는 남다른 사랑과 그윽한 정을 지니고 있다. (홍성원, 문학과지성사, 1993)
- ㄴ. 숙부는 그 누이에게 깊은 정까지 품게까지 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 (홍성원, 문학과지성사, 1993)
- ㄷ. 한국인 친구 가운데는 정을 속에 깊이 묻어 두는 사람들이 많다. (좋은 생각, 2000)
- ㄹ. 우리 조상들은 정을 가볍게 걸으며 드러내는 사람은 진실함이 적다고 가르쳤다. (좋은 생각, 2000)
- ㅁ. 그녀가 정이 담긴 눈길로 그의 모습을 살폈다. (복거일, 문학과지성사, 2001)

다음의 예에서는 인간이라는 용기 속에 담긴 '정'이 액체로 개념화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정'은 흐르고, 넘치고, 그 속에 빠지기도 하게 된다. (27)의 예들이 이러한 은유화를 잘 보여 준다.

(27)

- ㄱ. 그녀는 정으로 촉촉해진 목소리로 불렀다. (복거일, 문학과지성사, 2001)
- ㄴ. 우국의 정이 넘치는 상소문을 왕에게 제출하였다. (김용운, 한길사, 1985)
- ㄷ. 50년, 100년 뒤의 자손을 위해 정을 쏟아야 나무는 자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1982)
- ㄹ. 내 피를 끈끈하게 하여 연민의 정을 막아 버리고 (한겨레신문, 2001)
- ㅁ. 당신에게 흐르는 정 (이명훈, 문학사상, 2004)
- ㅂ. 정이 깊어 못 버리겠어요. (김영주, 창작과비평사, 1982)
- ㅅ. 두툼하게 오른 볼에 정이 넘쳐흐르는 듯한 표정 (신장현, 문학과지성사, 2001)
- ㅇ. 인간은 정의 세계에 빠지면 주관적이 되기 쉽다. (김용운, 한길사, 1985)
- ㅈ. 정의 물살이 차올라 숨찬 가슴으로 그는 그녀에게 소리 없이 속삭였다. (복거일, 문학과지성사, 2001)

같은 액체이긴 하지만, (28)의 예에서는 ‘정’이 서서히 스며드는 액체로 형상화되어, 시간이 걸리는 발달 과정임을 지칭하기도 한다.

(28)

- ㄱ. 그러다 정이 들어 결혼을 했는데 (좋은 생각, 1999)
- ㄴ. 역사처럼 거기에는 인간의 정이 배어 있고 (이어량, 문학사상사, 2003)
- ㄷ. 정이 어린 편지를 보냈구려. (이화형, 유진월, 박이정, 2001)

### (3) [‘정’은 사람과 사람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끈]

위에서 ‘정’이 사람의 안 혹은 밖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물건에 비유가 되었다면, 여기서의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 끈에 비유된다. (29)의 예를 살펴보자.

(29)

- ㄱ. 감사의 표시는 사람과의 사이를 부드러운 정으로 이어주는 벨트의 역할을 한다. (김양호, 영언문화사, 2001)
- ㄴ. 두 분의 아름다운 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좋은 생각, 2000)
- ㄷ. 우리 다시 만남을 추석으로 끈을 맺고 가다가 다 정을 풀어 이웃에 주며 (김영희, 디자인 하우스, 1992)
- ㄹ. 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낳은 아이야. (이은희, 궁리출판, 2002)

이렇듯, ‘정’이 사람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끈의 역할을 한다는 비유에서 ‘정’의 관계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붙이다, 떼다, 끊다, 떨어지다, 단절되다’ 등의 비유를 사용한다. (30)의 예가 그것이다.

(30)

- ㄱ. 아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이와의 정을 끊으려는 뜻일 것이다. (홍성원, 문학과학사, 1993)

- ㄴ. 이놈의 집 구석이라고 위디 하나 정 붙일 데가 있어야 말이지. (우애령, 문학과지성사, 2001)
- ㄷ. 아끼던 개도 정을 때려고 안락사를 시켰어요. (권지예, 문학과지성사, 2002)
- ㄹ. 친구도 뭐고 만정이 떨어졌다. (공선옥, 문학과지성사, 20020)
- ㅁ. 어려서의 정에 끌려 파라오와 소극적으로 대결한 것도 아니다. (한겨레신문, 1999)
- ㅂ. 부패와 단절된 정에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미래 사회를 깊어지고 ... (현대불교신문, 1995)

더 나아가, (31)의 예들을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감정의 끈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 ㄱ. 몸은 떠나지만 그 마음은 속세의 정에 얽혀 있다. (이어령, 문학사상사, 2003)
- ㄴ. 이 정의 네트워크가 온 나라에 거미줄처럼 엉켜있었기에 그토록 못 입고 못 먹고 ... [조선일보사, 2002]
- ㄷ. 함께 굶고 함께 떨며 자란 우애와 정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홍성원, 문학과지성사, 1993)

이러한 예들은 '정'이 사람 사이에 발전하는 복잡한 감정이며, 그 시작과 끝이 쉽지 않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4) ['정'은 자라는 식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은 상대방과의 오랜 시간에 걸친 유대관계의 결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은 종종 자라는 식물에 비유되곤 한다. (32)의 예를 보자.

(32)

- ㄱ. 싸움 끝에 정이 난다. (속담)
- ㄴ. 예전보다 더욱 뜨겁게 승학을 아끼는 사랑과 정이 싹튼 것이다. (홍성 위, 문학과지성사, 1993)
- ㄷ. 그들 나뭇의 질기고 끈끈한 정과 사랑을 키워 왔다. (홍성원, 문학과 지성사, 1993)
- ㄹ. 연못의 용과 점을 맺어 그를 낳았다. (이어령, 문학사상사, 2003)
- ㅁ. 비록 남부하고 외로운 생활일망정 가는 해의 사연들은 정에 맺힌다. (이어령, 문학사상사, 2003)

즉, ‘정’이라는 싹이 트고, 자라고,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 식물로 은유화된 것이다. 최상진, 김기범(2011:105)은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감정이라고 하였다.

(5) [‘정’은 자양분]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때때로 ‘정’은 사람이 먹고 마셔야 할 자양분으로 개념화되곤 한다. 코퍼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었다.

(33)

- ㄱ. 정에 굶주린 아이들이라 (조선일보사, 2001)
- ㄴ. 시골의 농부들은 과실과 떡과 술의 미각으로 만추의 정을 맞볼 것이다. (이어령, 문학사상사, 2003)

(33 ㄱ)에서 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비유되고 있다.

(6) [‘정’은 사람]

마지막으로, ‘정’은 그 사람 자체이다. 여기서 ‘정’은 ‘사람이라는 용기에 담긴 유체’의 은유화에서 확장하여 그 용기 자체로 제유(synecdoche)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의 예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34)

- ㄱ. 판노 놨이 아씨를 짝사랑하다 제 정에 못 이겨 뜻을 이루려다가 실패했  
을 뿐 (김영하, 문학과지성사, 2001)
- ㄴ. 정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며 다신 오지 말라고 하셨다. (종  
은 생각, 2000)
- ㄷ. 그녀를 위해 울어 줄 순수한 정이 윤향순에게 남아 있다는게 (이문열,  
민음사, 1989)
- ㄹ. 육칠 년이나 같이 살아온 정으로? (염상섭, 창작과비평사, 1987)
- ㅁ. 그래도 사람의 정을 한번 믿어 보기로 하고 갑생은 길은 나섰다. (공선  
옥, 문학과지성사, 2002)

이러한 '정'의 사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정'은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감정이다. 둘째, '정'은 사람 밖에 존재하기도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고 가거나 연결한다. 셋째, '정'은 성장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생겨나는 것이다. 넷째, '정'은 따뜻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정'은 때로는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은 오랜 시간에 걸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끈끈한 감정이다.

### 3) 일본의 '아마에'와 한국의 '정'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토착 문화심리적 개념으로는 '정(情)', '한(恨)', '우리성', '화(火)', '체면(體面)', '눈치', '의리(義理)' 등이 있다(최상진 2007; 최상진, 김기범 2011). 이 중에서 '정'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하는 감정이라 하겠다.

(35)

- ㄱ. 이런 한국인의 정서를 정이라 하였으며 근세에 와서 활동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정에 대해 깊이 감동했다. (조선일보 2002)
- ㄴ. 원래 한국에는 가문, 혹은 좀 더 쉽게 말해서 골육의 정을 부정한 종교가 존재할 수 없었다. (김용운, 한길사, 1985)

- ㄷ. 한국의 혈연부락은 물리적인 힘의 집단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 정을 자위하는 수단으로 하는 집단이었다. (김용운, 한길사, 1985)

이러한 ‘정’의 관계는 일본의 ‘아마에’처럼 모정(母情)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모태로 하며 가족 간의 ‘정’이 그 기본을 이루고 있다. 코퍼스 자료에서 보면, 많은 예에서 가족 간의 ‘정’을 볼 수 있었다.

(36)

- ㄱ. 친아들같이 대했던 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되는 배신감 때문이었다.  
(좋은 생각, 1999)
- ㄴ. 엄마의 정이 그리워 울고 있는 나에게 갓 태어난 딸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좋은 생각, 1999)
- ㄷ. 특히 쌍순은 제 손으로 키운 막내 동생 종배에게는 어머니가 자식에게 느끼는 듯한 유별난 정과 내리사랑을 지니고 있다. (홍성원, 문학과지성사, 1993)
- ㄹ. 가장 절기고 모진 것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정이라고 듣고 있다. 한데 바로 이 여인은 그 모진 정을 끊으려 하고 있다. (홍성원, 문학과지성사, 1993)

이렇듯,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어머니와의 원초적 관계에서 ‘아마에’와 같은 의존의 심리 상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37)의 예를 보자.

(37)

- ㄱ. 어머니의 '젓'은 아이들을 더 어리게 만든다. 누구나 어머니 앞에서는 응석을 부리고 싶어 한다. (이어령, 문학사상, 2003)
- ㄴ. 자신의 선악과는 무관하게 즐라대고 투정하고 응석부릴 수 있는 모성의 존재란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될 ... (이문열, 민음사, 1989)
- ㄷ.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도 누구나 어머니 앞에서는 어리광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어령, 문학사상, 2003)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끈끈한 가족 간의 관계는 흔히 더 큰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투영된다. 친한 손윗사람은 ‘형’ ‘오빠’ ‘언니’ ‘누나’가 되고, 이상적인 선생님과 회사 상사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sup>5)</sup>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이모’, ‘언니’와 같은 친족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가족 밖의 관계에서도 흔히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가족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정’이라는 개념이 가족 밖으로도 확대 투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38)의 예를 살펴보자.

(38)

- ㄱ. 저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너무 정이 들어서 마치 내 집 같군요. (김서정, 문학과지성사 2001)
- ㄴ. 한결같이 내 좋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우리 임 혹은 다정한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했다. (서유영, 궁리출판, 2003)
- ㄷ. 우리 겨레의 이같은 뿌리 깊은 이웃간의 정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집 시가 답장을 넘으며 웃음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어져 ... (김유혁, 신양사, 1996)
- ㄹ. 유진상씨는 “무한경쟁으로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 사이의 정을 되살리자는 뜻을 공장이란 상징적 터에 풀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신문, 2001]

(38)의 예에서 ‘정’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 연인이나 친구사이, 더 나아가 이웃 및 사람 사이에 보편적인 지녀야 할 감정으로 제시되고 있다.<sup>6)</sup> 그리하여

- 
- 5) 일찍이 그리피스(1882)는 한국인이 갖은 커다란 미덕의 하나는 “인간은 모두 형제이다”라는 신념을 철저히 실천하며, 그 민족성은 서로 돕고 두터운 ‘인정’을 베푸는 점에서 타민족과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 6) 흥미로운 것은 ‘정’이 사람뿐만 아니라 꽃, 나무, 약기, 심지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게도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것이다.
    - (i) 50년, 1백년 뒤의 자손을 위해 정을 쏟아야 나무는 자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1982)
    - (ii) 꽃은 마치 어린 동생을 업고 빨래터에 나가던 옛 누이의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한다. (좋은 생각, 1999)

‘정’은 한국인에게는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면을 가리키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 투사된 ‘정’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법이나 사회 정의보다는 감성과 직관이 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달라는 것 없이 미운 놈 있다” 등의 비논리적이라 할 만한 속담은 우리 사회가 감성적 인식과 평가를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최상진, 김기범(2011)은 정의 관계는 ‘비합리적, 비타산적,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의 세계에서는 ‘아마에’나 ‘응석’과 같은 감성적, 관계적 의존이 용납되는 분위기가 쉽게 형성된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비교한 김용운(1985:137)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를 강조하는 명분의 배경에는 실사 실수를 해도 자기가 했을 때와 똑같이 봐준다는 ‘응석’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일본의 ‘아마에’와 같은 행위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표현도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행위가 바닷가의 자갈돌처럼 흔하게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어령 1982), 일본의 ‘아마에’에 상응하는 단일 표현은 없는 듯하다. 연구자에 따라, ‘응석’, ‘어리광’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두 빈도수가 낮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함축의미를 가진 여러 단어들로 쓰이는 것 같다. 즉, 한국어에서는 ‘아마에’와 같은 행위의 바탕이 되는 심리체계로서 ‘정’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나, ‘정’의 한 발현 형태인 의존 행위는 가리키는 단일한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음의 실제 언어 사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코퍼스를 살펴보면, 앞에서 논의했던 ‘애교’, ‘응석’, ‘어리광’, ‘아양’ 등이 원초적인 모정(母情)에 기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39)

7. 당신도 별로 아프지 않는데도 많이 아픈 척하면서 어리광 피우고 싶을

(iii) 첼로같이 덩치가 큰 악기는 괜히 정이 안 가요. (유기성, 삼신각, 1994)

(iv) 병도 20년을 같이하다보면, 정이 들어 벗 삼게 되고 의지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 (박완서, 창작과비평사, 2002)

때가 있나요? (좋은 생각, 2000)

- ㄴ.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아무리 애교를 섞어 어리광 피우고 나와도 절대 이건 양보하지 않겠어. (민해연, 영언문화사, 2001)
- ㄷ. 그것조차도 어리석고 착한 백성의 헛된 환상, 분수를 모르는 응석이었을까. 굶주림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공포가 끝난 건 아니었다. (박완서, 창작과비평사, 2002)
- ㄹ. 저는 새로운 풍토로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복했습니다. 어리광을 피려는 저의 손길을, 위대한 인민공화국은 매정스레 뿌리치더군요.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2001)

(39)의 예를 보면,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논리적 가치 판단을 넘어서 특별한 애정이나 신뢰를 받기 위한 행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모든 예에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 행위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 때문에 생긴 혼란 행동 양상이긴 하나, 사회/문화적으로 권장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여러 단어가 사용되고 있긴 하나 단일한 개념으로까지는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이제 다시 본 연구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본 연구는 (1) 일본 문화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문화에서도 '아마에'와 같은 현상이 존재하는가? (2) 만약 그렇다면, 두 개념은 얼마나 유사한가? 마지막으로, (3)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언어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즉, 일본 문화의 키워드인 '아마에'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그러한 개념이 이웃 나라인 한국 문화에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일본인의 심리/행동 체계를 나타내는 '아마에'에 상응하는 한국인의 심리/행동체계를 나타내는 개념어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

서도 ‘아마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 행위가 있긴 하나, 이를 지칭하는 개념어가 단일어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교’, ‘아양’, ‘응석’, ‘어리광’같은 단어들이 존재하나 비교적 빈도수가 높지 않고,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체계로서는 한국인의 대표정서라 할 수 있는 ‘정(情)’을 설정하고 그 의미를 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를 통한 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정’이 ‘아마에’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향한 모정에서 출발하여 가족 간의 관계로부터 사회적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감정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생겨나는 따뜻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개념화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정’이 오랜 시간에 걸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끈끈한 감정으로써, 때로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어의 ‘아마에’가 심리/행동체계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면, 한국어의 ‘정’은 오히려 그 심리 상태만을 이르는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아마에’가 ‘아마에루(甘える)’, ‘아마야까수(甘やかす)’라는 동사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정’의 경우에는 ‘정다운’ ‘다정하게’와 같은 표현은 있으나 동사형은 없는 것으로 보아 행위보다는 감정체계만을 지시함을 알 수 있었다.

---

#### 주제어

아마에(甘え), 정(情), 어리광, 응석, 코퍼스, 인지언어학

## ❖ 참 고 문 헌

- 김용운,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역사적 체험과 민족성의 논리』, 한길사, 1985.
- 나익주, 「'정'과 '한'의 은유적 개념화」, *한국어 의미학* 20, 2006. 91-120.
- 신혜경, 『한국인과 일본인의 언어행동과 문화의 차이』, 보고사, 2006.
- 이상옥, 「일본어의 甘え(아마에)의 대상과 어휘에 관한 고찰: 일본 대학생의 양케이트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35, 2006. 103-122.
- 이상옥, 「아마에(甘え)의 담화 스타일에 대한 고찰: 아마에(甘え)를 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3, 2008. 186-206.
- 이상옥, 『일본어의 아마에(甘え)의 언어행동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갑인출판사, 1982.
- 최상진, 김기범, 『문화심리학: 현대 한국인의 심리 분석』, 지식산업사, 2011.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00. 203-222.
- Behrens, Kazuko, A multifaceted view of the concept of *amae*: reconsidering the indigenous Japanese concept of relatedness. *Human Development* 47, 2004. 1-27.
- Berton, Peter, How unique is Japanese negotiating behavior? *Japan Review* 10, 1998. 151-161.
- Kövecses, Zoltan,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Clare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Kumagai, Hisa and Kumagai, Arno, The hidden “I” in *amae*: “passive love” and Japanese social perception. *Ethos* 14 (3), 1986. 305-320.
- Kwon, S.-Y, Co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cross-cultural reappraisal of boundaries and relationality. *Pastoral Psychology* 50, 2001. 39-52.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ebra, T. S.,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6.
- Lewis, Rees and Ozaki, Ritsuko, *Amae* and *mardy*: a comparison of two emotion term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0 (6), 2009. 917-934.
- Michell, D.O., *Amaeru: The Expression of Reciprocal Dependency in Japanese*

*Politics and Law*. Boulder, CO: Westview, 1976.

Okonogi, K., *Amae* as seen in diverse interpersonal inte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1992. 18-25.

Taketomo, Y., *Amae* as metalanguage: A critique of Doi's theory of *ama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14, 1986. 525-544.

Toi, Takeo, *The Anatomy of Dependence* [『甘えの構造』(弘文堂, 1971)].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1973.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lackwell Publishing, 1953.



❖ ABSTRACT

## A Cognitive Study on *Jeong* in Korean and *Amae* in Japanese

Myung-Hee Kim

Since Takeo Toi's discussion in *The Anatomy of Dependence* (1973), the concept of *amae* has generated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fields of psychology, anthropology, communication and other fields.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greements on the definition and functions of *amae* (Behrens, 2004). Furthermore, it has rarely drawn interest from linguists in general and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ocial interac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amae* in Japanese and the corresponding phenomena in Korean, and attempts to explo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prototype of the *amae* relationship is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Doi, 1973). Even an adult can assume the role of a baby, showing his or her need for dependence on others and expecting to be accepted. It turns out that *amae*-like phenomena frequently occur in everyday life in Korea as well (Lee, 1982). There is no single term for the concept, but it can be translated in many different ways in Korean, for example, *aykyo*, *ayang*, *ungsek*, *erikwang*, etc. It can hav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connot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seems that the psychological system that causes dependent behaviors such as *ungsek* in Korea is *cheong*, one of the key terms characterizing the Korean culture. *Cheong*, like *amae*, starts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extending to familial and to other relationships. A corpus-based analysis shows that *cheong* is conceptualized as gluing people together,

growing over time, and also potentially fatal because it assumes illogical, uncalculated, and personal relationships.

In conclusion, unlike some Japanese scholars' claim that *amae* is the Japanese concept that exists only in Japan, it seems that similar phenomena do exist in Korea as well, but that Korean has no single term corresponding to *amae* in Japanese. It seems that *cheong* can be posited in Korean as the inner emotional system that makes *amae*-like behaviors possible, and that there is not single term, but many, designating the behaviors, possibly because the behaviors have a negative connotation and are not encouraged in Korean society.

---

Keywords

*amae*, *cheong*, *erikwang*, *ungsek*, corpus, cognitive linguistics

논문접수일: 2012. 05. 11

심사완료일: 2012. 06. 11

게재확정일: 2012. 06. 15